

유통업계, 쿠팡 '쿠팤이' 진화방향에 주목

강민 기자 | 입력 2022.03.21 16:12 | 댓글 0



쿠팡, 핀테크 스타트업 브렉스 창업자 사외이사 선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유통업계가 쿠팡이 쿠팤이를 어떤 형태로 발전 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쿠팡이 미국 핀테크 스타트업 브렉스 창업자 페트로 프란체스키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너지가 창출될 지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브렉스 창업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

브렉스는 지난 2018년 프란체스키가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설립 5년차에 미국에서 주목 받은 기업이다. 온라인 금융계좌를 열고 5만 달러를 예치하면 법인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신용이 낮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게 환영 받았다. 은행이 제공하지 못한 금융 서비스란 점에서 주목 받았다.

쿠팡은 배달 플랫폼, OTT와 함께 핀테크 산업을 성장 신사업인 분류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사회 영입에 '쿠팤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다양한 논란이 일어왔지만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전개로 정면 돌파를 택해왔다"라며 "최근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김법석 전 쿠팡 이사회 의장이 프란체스키를 소비자 중심 금융 서비스 산업을 바꾸는데 앞장섰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히 간편 결제 서비스 강화 차원이거나 보다 새로운 간편 결제 문화를 구축할 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팤이 vs. 당근페이, 간편결제 시장 잡아라... 쿠팡 당근마켓 격돌

정채영 기자 2022-03-01 13:07:07

+ 100% -

[더밸류뉴스= 정채영 기자]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과 중고거래 플랫폼 1위 기업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김재현)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맞붙었다. 두 회사는 각각 쿠팤이와 당근페이로 간편결제 이용자 늘리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집콕 ↑→간편결제 이용자 ↑

간편결제란 글자 그대로 공인인증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페이(smart pay)'로도 불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 평균 5590억원으로 전년도 하반기 대비 12.5% 증가했다.

◆쿠팤이, 간편결제 가운데 가장 간단 '원터치 입력'

쿠팡의 쿠팤이는 단시간에 사용자 수 1000만명을 넘기며 국내 핀테크 시장의 섯별처럼 등장했다. 쿠팡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팤이'를 독립했고, 2020년 4월에 핀테크 사업부를 분사해 쿠팡페이를 설립했다.